

3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모의 탁아 실태와 탁아에 대한 죄책감

The Actual Condition of Day Care Type and Guilt in the Employed Mothers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가정교육학과
부 교수 백경임
경희대학교 아동주거학과
박사과정 강희경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yung Joo Campus, Dongkook Univ.

Associate Prof: Kyung-lm Baik

Dept. of Housing,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hee Univ.

Doctoral Course : Heekyung Ka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ctual condition of day care type and guilt in employed mothers. The subjects consisted of 172 employed mothers who had children from 2 to 36 months of ag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ctual conditions of day care type were mostly child care by relatives. Factors that were useful in predicting guilt of employed mothers were the following variables : satisfaction of day care, change of caregiver, the value of children. Implications for knowledge as well as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I. 서론

남녀평등 사상의 보급과 여성의 교육연한 증가, 경

제적 필요 등으로 인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1965년에는 여성의 36.5%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했지만,

1992년에는 무려 47.3%로 증가하였다(한국여성개발원, 1994).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은 점차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1993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여성취업자 중 기혼여성의 비율이 74.8%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1994). 또한 자녀의 연령이 어린 기혼여성의 취업율이 높아져서 1994년 현재 0-5세 아동 중 약 45%가 취업모의 자녀로 추산되고 있다(보건사회부, 1994). 그러나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취업은 여성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결과들은 부인이 취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의 분배나 자녀양육의 부담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고(허경옥, 1994)하고 있다. 또한 1986년 한국여성개발원이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상자의 80% 이상이 자녀양육 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응답한 것을 볼 때 여성의 취업여부가 자녀양육과 직결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박성옥, 1995, 재인용). 사실상 기계문명의 발달과 경제적 여유로 인해 가사노동의 책임은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적절한 탁아체계가 미흡한 우리나라의 현상황에서 취업모가 겪어야 하는 심리적 고통은 실로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자녀양육이 전적으로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전통적 사고가 존재하는 한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 두고 직장에 나가야 하는 어머니들이 겪어야만 하는 심리적 죄책감 내지 불안감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Belsky, 1992). 더우기 공식적 영아탁아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적절한 자녀양육대안을 찾지 못한 취업모의 심리적 부담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점에 착안하여 어린 자녀를 타인의 보호하에 두고 직장에 나가야만 하는 우리나라 취업모의 탁아 실태를 분석하고 또한 탁아에 대한 심리적 죄책감의 정도 및 관련 변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탁아 연구가 주로 그 실태(김민선, 1991; 서동영, 1992; 신현주, 1993; 이순영, 1993; 이윤희, 1993; 이진주, 1987; 이현정, 1993; 전세경, 1994; 제현순, 1994)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비교적 최근들어 발달적 효과에 대한 연구(김미경, 1985; 양안나, 1990; 조선영, 이영, 1992; 최순남, 1974; 황현주, 1991; 홍금자, 1987; 홍상실,

1992)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어머니의 측면에서 탁아가 갖는 효과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들은 3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모의 탁아 양상 및 취업모가 겪어야 하는 심리적 어려움, 즉 죄책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본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탁아에 대한 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을 규명함으로써 취업모의 측면에서 제반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는 미시적, 거시적 차원에서의 지지체계를 구성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상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3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모의 탁아 실태 및 지특성은 어떠한가?

2. 3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모의 탁아에 대한 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기혼여성의 취업과 탁아 실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반드시 낙관적으로만 보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졌다고 단언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이 수반된다. 직장에서의 성차별, 특히 불평등한 보수체계와 승진기회, 고용조건, 부당한 처우 등에 더하여 가정 내에서의 가사와 육아의 문제는 여성의 사회참여에 커다란 문제점 내지 장애점으로 대두된다(한국교육학회 유아교육연구회, 1992). 특히 취학전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를 대리하여 돌봐줄 대리 양육자를 찾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1994년 탁아를 필요로 하는 6세 미만 유아 1,011,000명 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는 207,233명으로 수요의 20.5% 정도의 선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탁아연구모임, 1994).

이러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취업모는 비공식적인 양육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공식적인 자녀양육대안은 주로

가족원에 의한 양육유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1992; 전세경, 1994),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그외 이모·고모·숙모 등의 친인척에 의한 대리양육유형이 그것이다. 이외에 가족원에 의한 대리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아이를 돌봐주는 아주머니나 할머니, 또는 파출부 등에 의한 개인탁아 유형이 있을 수 있다. 비용이 다른 양육유형에 비해 비싼 개인탁아가 이용되는 주된 이유는 탁아소나 가정탁아시설에서 대소변 훈련이 되지 않은 영아는 돌봐주지 않고, 영아기 자녀를 돌봐줄 마땅한 친척이 없는 경우 취업모는 다른 대안을 선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시취업모의 탁아유형 실태를 조사한 전세경(1994)의 연구에서도 영아기 자녀(62.6%)의 경우 유아기자녀(44.8%)보다 가족원에 의한 탁아유형이 높았다. 또한 가족의 소득이 높을수록 가족에게 맡기거나 비용의 부담이 큰 개인탁아유형이 높았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1992)의 취업모의 자녀양육현황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리양육자가 취업모의 직종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서, 전문직과 사무직인 경우 절반이상이 시부모와 친정부모가 영유기자녀(전문직 57.0%, 사무직 63.0%)를 주로 돌봐주는 반면, 생산적인 경우에는 탁아시설(63.0%)을 이용하는 사례가 월등하게 높았다. 이상 두 연구의 탁아실태가 시사하는 점은 첫째, 적절한 영아기 탁아유형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영아기자녀의 탁아유형이 주로 가족원에 의한 양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가족외부에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적절한 탁아체계가 절대 부족함을 반영한다. 둘째, 물론 적절한 탁아체계가 미흡하기도 하지만, 가족탁아유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자녀를 어머니가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가족원이라도 양육해야 한다는 전통적 사고의 반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1992)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직종이 전문직인 경우, 휴직하고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37.3%)하였고, 사무직(39.3%)인 경우 시·친정부모에 의한 대리양육을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여전히 우리 사고에 전통적 육아관이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취업모의 탁아에 대한 죄책감

현대 여성은 경제적 필요 뿐 아니라 개인적 만족 내지 성취를 위해 취업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취업모는 “좋은 어머니(good mother)는 가정에 있어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를 갖게 하는 사회화된 딜레마와 여성의 취업이 경제적으로나 정신건강상으로 바람직하며 필요하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즉 취업모는 이른바 부모역할과 취업이라는 이중책임의 스트레스를 경험케 되는 것이다. 정신건강적 측면에서 취업모에게 더 큰 역할부담이 되는 것은 “좋은 어머니”라는 전통적 어머니상에 대한 고정관념이다. 또한 취업모에게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이나, 탁아의 효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어머니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심리적 죄책감을 가질 수 있다(Mann & Thornburg, 1987).

탁아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효과 및 탁아 실태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취업모의 측면에서의 심리적 효과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Galinsky, 1992). 탁아가 취업모의 심리에 미치는 효과로서 논의되는 것으로는 역할갈등, 우울증, 스트레스 수준이 있다. 최근들어 국내에서 어머니의 격리불안에 대한 연구보고(김은형, 1995; 박성옥, 1993; 송진숙, 1994)가 잇기는 하지만 취업내지 탁아 상황이 어머니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심리적 효과를 논의하기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6-24개월된 자녀를 주당 20시간 이상 탁아소에 보내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Mann과 Thornburg(1987)의 연구에서는 탁아기관에 다니는 영유기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 죄책감에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자녀의 성별, 탁아만족도, 탁아기관 교사와 어머니간의 의사소통 만족도가 취업모의 죄책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일수록, 탁아만족도가 낮을수록, 의사소통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모의 탁아에 대한 죄책감수준은 높아졌다고 한다. 자녀가 여아일수록 취

업모의 죄책감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딸이 아들에 비해 신체적, 심리적으로 연약하며 상처받기 쉽다고 어머니들이 지각하기 때문이며, 취업모의 탁아만족 수준은 어머니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와 직접 연관을 가지므로 죄책감과 부적 관계를 보인 것이라고 한다. 탁아교사와의 의사소통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업모의 탁아에 대한 죄책감이 많아지는 것은 탁아소에서의 자녀의 세세한 일상활동을 아는 것이 오히려 죄책감을 더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연구자들은 해석하였다. 그러나 자녀의 월령은 어머니의 죄책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연구를 통해 탁아의 질적 특성이 취업모의 탁아에 대한 죄책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지만 Mann과 Thornburg(1987)의 연구는 탁아기관에 다니는 자녀를 둔 취업모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탁아 유형에 따른 효과를 논의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다.

최근들어 아버지역할이 부각되면서, 단지 주변인이 아닌 가족에 합류된 실제 부모로서, 어머니 못지 않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Scarr, 1992). 즉 취업모가족에서 아버지의 적극적인 역할수행이 있다면 취업모의 심리적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가 있는데, Mason과 Duberstein(1992)에 의하면 남편이 자녀양육에 참가하지 않고, 적절한 자녀양육대안을 찾지 못하면 취업모의 우울증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내에서 남편이 자녀양육자로서 충분한 지지를 줄 수 있다면 취업모가 자녀양육에 대해 갖는 심리적 죄책감은 어느 정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취업모에게 미치는 심리적 효과와 관련되는 변인으로 어머니의 근무시간 융통성이 있을 수 있는데, 즉 근무시간의 융통성이 많을수록 취업모는 자녀의 탁아에 덜 어려움을 겪고, 직장-가족간 갈등을 적게 경험하며 부모역할만족도도 높아진다고 한다(Galinsky, 1992).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두고 볼 때 탁아의 질적 특성변인, 탁아에 대한 지지변인, 어머니의 사회심리적 특성변인 및 자녀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취업모의 탁아에 대한 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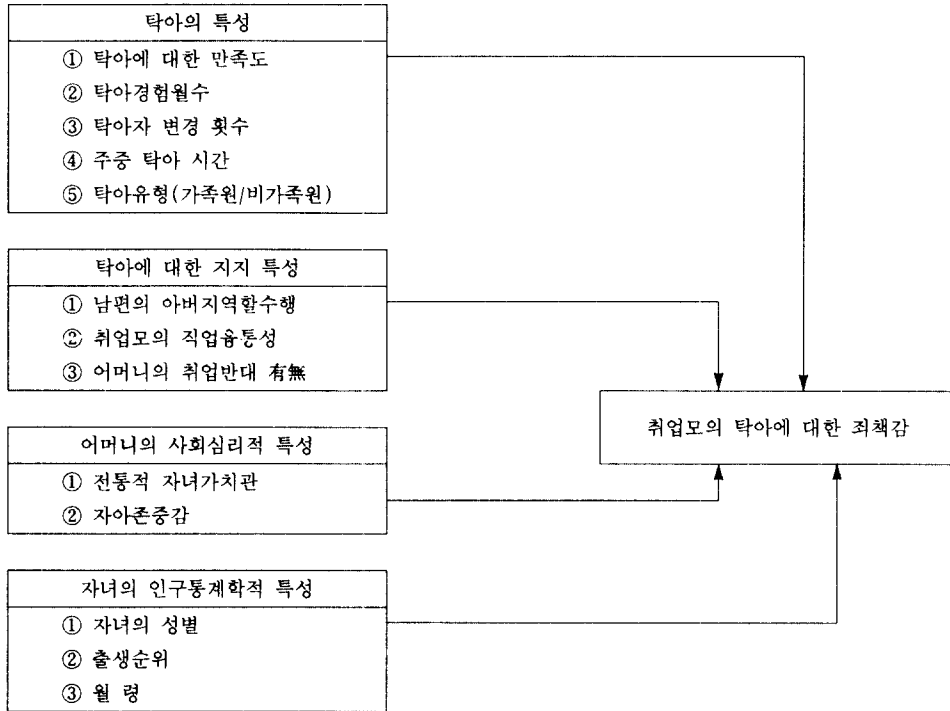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만 3세 이하 자녀를 주 20시간 이상 타인양육하에 두고 직장생활을 하는 취업모로 표집은 연구자를 통한 편의 표집을 하였다. 주당 20시간 이상의 탁아로 제한한 것은 Belsky(1986)의 분류에 근거한 것이며, 연령을 3세 이하로 정한 이유는 현재 유치원 취학연령이 만3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유치원 외의 사설 학원 및 어린이집, 놀이방 등의 탁아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연령적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즉 대부분의 어린이집, 놀이방은 최소한 대소변훈련이 지난 영아를 돌봐주므로 어린 영아기자녀를 둔 취업모는 비공식적 자녀양육대안 체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세 이상 자녀를 둔 취업모에 비해 그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최종분석에 이용된 질문지는 총 172부로써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취업모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20대와 30대 이상이 각각 비슷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고, 평균 연령은 30.03(SD=3.29, 범위 23-42)세였다. 학력분포는 대졸이상이 64.6%로 본연구의 대상인 취업모가 비교적 고학력여성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업분포 역시 디자이너, 의사, 학원원장, 대기업과장급 이상의 전문관리직이나 평교사, 은행원, 회사원 등의 사무직이 전체의 65.1%를 차지하였다. 한편 어머니의 결혼이전 직업유무를 살펴보면 직업이 있었던 사례가 92.4%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가족형태의 경우도 핵가족(76.2%)이 많았다.

대상 자녀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아가 54.7%, 여아가 45.3%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월령의 경우 12개월 이하 집단 22.7%, 13-24개월 집단 32.6%, 25-36개월집단이 44.8%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월령은 21.37개월(SD=9.88, 범위 2-36개월)이었다. 출생순위는 첫째가 68.6%로 가장 많았다.



〈그림 1〉 취업모의 탁아에 대한 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모델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N=172

변 인	내 용	빈 도 (%)	변 인	내 용	빈 도 (%)
연 령	20대	85(49.4)	가 족 형 태	확대가족	41(23.8)
	30대	87(50.6)		핵 가족	131(76.2)
학 령	고졸이하	40(23.3)	직 업	전문·관리직	35(20.3)
	전문대졸	21(12.2)		사무직	77(44.8)
	대학졸업	98(57.0)		판매·근로직	35(20.3)
	대학원이상	13(7.6)		기 타	25(14.5)
결혼이전 직업有無	직업 有	159(92.4)	자녀의 성 별	남	94(54.7)
	직업 無	13(7.6)		녀	78(45.3)
대상자녀 월 령	12개월이하	39(22.7)	대상자녀 출생순위	첫 짜	118(68.6)
	13-24개월	56(32.6)		둘 짜	49(28.5)
	25-36개월	77(44.8)		세째이상	5(2.9)

2.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는 취업모의 탁아에 대한 죄책감, 탁아에

대한 만족도, 자녀에 대한 가치관, 어머니의 직업용 통성, 아버지의 가족내 역할수행, 어머니의 자아존중 감 및 직업 특성 및 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통해 실행되었다.

탁아에 대한 죄책감 및 만족도는 Mann과 Thornburg(1987)가 개발한 "Maternal Guilt Scale" 7점 likert 10문항을 연구자가 번안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척도는 탁아에 대한 어머니의 죄책감요인 7문항, 탁아에 대한 만족도요인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가치관은 Arnold 등(1975)의 "The Value of Children"의 31개 원문항을 우리나라 어머니의 자녀가치관에 맞게 수정한 박성옥(1993)의 15문항으로써 측정하였다. 이 문항은 5점으로 구성된 likert 척도로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표현하는 도구적, 애정적 가치에 '매우 반대(1점)'에서 '매우 찬성(5점)'까지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어머니의 직업용통성에 대한 문항은 직업차원을 측정하는 3가지 척도(Easy of Work, Flexibility, Support)를 구성한 Glass와 Camarigg(1992)의 조사도구 중 직업용통성에 관한 13문항을 수정, 번안한 홍성례(1995)의 연구에서 본연구자가 개념상 반복된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삭제하여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척도이다. 아버지의 가족내 역할수행 역시 홍성례(1995)의 연구에서 사용된 '남편의 가족역할 수행'의 배우자역할, 부모역할, 친족역할, 가사분담자역할, 가계경제관리역할, 부양자역할, 대외적 역할 등 총 33문항의 7영역에서 본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부모역할의 4문항, 5점 likert척도로 아버지의 부모역할수행 정도를 측정하였다. 끝으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Coopersmith(1967)가 개발한 Self-Esteem Inventory(SEI)의 50문항을 척도개발자가 다시 25문항의 단축형으로 개발한 것을 수정한 것을 번안한 김경연(1987)의 연구에 사용된 도구로 측정하였는데, 본 도구는 '그렇다(1점)', '아니다(2점)'의 2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이외 연구대상자 및 자녀에 대한 일반적 배경변인과 탁아에 상황에 대한 문항은 연구자가 직접 구성하였다.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1) 예비조사

본조사 실시 이전에 측정도구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한 예비조사를 1995년 9월 25일-9월 30일까지 눈덩이 표집을 통해 3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모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7문항으로 구성된 "취업모의 탁아에 대한 죄책감"에 대한 신뢰도분석에서 문항간의 내적 합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 α 계수가 .84로 나타났고, 15문항으로 구성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Cronbach α 계수가 .86으로 산출되었다. 또한 25문항으로 구성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의 Cronbach α 계수는 .79로 나타내서 본연구의 측정도구가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도구임이 확인되었다.

2) 본조사

본조사는 동국대학교 가정교육학과 학생을 통해 1995년 10월 4일-10월 18일까지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AS P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되었는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탁아실태 및 죄책감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등을 사용하였고, 취업모의 탁아에 대한 죄책감과 관련이 되는 독립변인군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순서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취업모의 탁아에 대한 죄책감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가정되는 탁아특성 변인군을 1차로, 두번째로는 탁아에 대한 지지특성 변인군을, 세번째로 어머니의 사회심리적 특성변인군을, 마지막으로 탁아를 받는 자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군을 순서대로 입력하였다.

IV. 연구결과

1. 취업모의 탁아 실태 및 지지특성

취업모의 탁아 특성에 대한 분석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유형은 시어머

〈표 2〉 취업모의 탁아 특성

N=172¹⁾

변인	내용	빈도(명)	비율	평균(SD)	범위
탁아 유형	시어머니	43	25.0		
	친정어머니	48	27.9		
	친인척	9	5.2		
	놀이방	29	16.9		
	어린이집	13	7.6		
	파출부	3	1.7		
	아주머니, 할머니	26	15.1		
	기타	1	0.6		
탁아자 변경횟수	바편적 없다	106	61.6		
	1번	32	18.6		
	2번	22	12.8		
	3번	11	6.4		
	4번	1	0.6		
탁아를 받기시작한 월령	6개월이하	116	67.4	6.35(6.02)	1-25
	7-12개월	30	17.4		
	13-24개월	25	14.5		
	25개월이상	1	0.6		
주중 탁아시간	24-40시간	34	19.8	55.33(22.41)	24-144
	41-50시간	35	30.2		
	51-60시간	48	27.9		
	61시간이상	38	22.1		
탁아비용 ²⁾	10만원이하	2	2.8	348,055	5만-90만원
	11-20만원	15	20.8	(175,212)	
	21-30만원	22	30.6		
	30-50만원	25	34.7		
	50만원이상	8	11.1		
탁아자 변경사유 ³⁾	가족원의 개인적 이유	30	27.5		
	돌봐주던 타인의 개인적 이유	27	24.8		
	아이가 놀이방 적응 못해서	18	16.5		
	이사와 직장 이동	17	15.6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해서	9	8.3		
	발달적 욕구에 맞는 유형 찾기 위해	4	3.7		
	비용 문제	2	1.8		
	가족원이 돌봐야 안심되니까	1	0.9		
맘가 휴직기간 동안 돌볼 수 있어서	1	0.9			

주1) 무응답으로 인해 전체 사례수는 차이가 있음.

주2) 비가족원에 의한 탁아비용만 분석되었음.

주3) 변경한 사례에서 복수응답에 대한 분석임.

니, 친정어머니 및 친척 등 가족원에 의한 양육 유형으로 전체 사례의 57.2%나 차지하고 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도시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전세경의 연구(1994)에서도 가족원에 의한 탁아유형이 전체 사례의 55.4%나 차지하고 있어서, 본연구 결과와 매우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1992)의 6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모의 탁아유형에서도 가족원에 의한 탁아유형이 57.0%로 모두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이외에 비가족원에 의한 개인탁아유형이 17.4%를 차지하고 있고 어린이집(7.8%)이나 놀이방(16.9%)을 이용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으로도 영아기 탁아기관의 절대 부족과 가족원에 의한 양육 유형 선호성을 간접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대상 자녀의 주중(월-토요일) 평균 탁아시간은 하루 9.22시간으로써, 월-금요일 평균 탁아시간은 10.10시간, 토요일 평균 탁아시간은 4.83시간이었다. 이들 중 주중 하루 평균 탁아시간이 24시간이라고 응답한 대상이 10사례나 있어서 주말부모(손승영, 1994)라는 새로운 가족유형을 실제로 반영해 주었다. 한편 탁아자 변경에 있어서는 바편적이 없는 경우가 전체 사례의 61.6%로 본 연구의 대상자녀가 비교적 안정된 양육을 제공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러나 가족원 또는 비가족원에 의한 현재 탁아유형에서 탁아자변경 횟수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현재 비가

족원에 의한 탁아인 경우 한번도 변경되지 않은 사례가 29.2%밖에 되지 않지만, 현재 가족원에 의한 탁아유형인 경우, 탁아자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85.0%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였다. 결국 탁아자가 가족원이나 비가족원이나에 따라 탁아자의 안정성이 보장됨을 알 수가 있다. 한편 양육형태 변경사유로서는 돌봐주던 가족원이나 비가족원의 건강, 이사 등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변경이 전체사례의 52.3%를 차지하고 있고 아이의 적응상 문제(16.5%), 이사나 직장이동에 의한 변경(15.6%) 등이 있었다. 대상자녀가 탁아를 받기 시작한 월령은 생후 6개월 이전이 전체 사례의 67.4%나 차지하고 있어 취업모들의 자녀출산 및 양육에 따른 부모휴직제의 필요성을 제기케 된다. 비가족원에 의한 탁아비용은 평균 348,000원으로써 1994년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정탁아시설 보육료 227,210원(3세 이하)보다 훨씬 상회하였다(탁아연구모임, 1994). 결국 비가족원에 의한 개인탁아비용은 취업모 가정 가계에 부담을 안겨주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표 3〉은 취업모의 탁아에 대한 지지특성에 대한 분석이다. 표에 의하면, 자녀출산 이후 직장생활 지속에 대한 주변 인물의 반대유무에 대한 문항 분석에서는 반대가 있었던 사례가 전체 사례의 37.2%를 차지하여서 어머니의 취업에 주변인물이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취업을 반대하

〈표 3〉 탁아에 대한 지지 특성

N=172

변인	내용	빈도(명)	비율
출산이후 직장 생활 반대유무	반대 있었다	64	37.2
	반대 없었다	108	62.8
직장생활 반대인물	남편	22	34.9
	시부모	18	28.6
	남편+시부모	6	9.5
	시부모외 시가친척	5	7.9
	친정부모	8	12.7
	친정부모외 친정식구	1	1.6
	기타(친구, 자녀)	3	4.8
직장생활 반대이유	자녀양육	54	93.1
	기타	4	6.9

는 경우 그 사유가 자녀양육이 93.0%로 여전히 우리사회에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있다는 전통적 사고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반대인물로는 남편과 시부모, 시가친척이 80.9%의 절대 다수 분포를 보여주었다. 결국 일련의 결과를 두고볼 때 우리나라 취업모들이 직업역할과 어머니역할간의 갈등을 겪으리라는 것을 쉽게 유추해낼 수가 있다. 한편 자녀출산 이후 직장생활을 지속하는 이유로써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경제적 이유와 자아실현(35.8%)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경제적 이유(30.5%), 자아실현(20.5%)이 있었다. 소수의견으로는 직업자체가 좋아서(7.9%), 사회생활을 해보고 싶어서(2.6%), 여성의 사회생활을 당연하므로(2.0%), 재취업이 힘드므로(0.7%)와 같은 응답이 있었다. 따라서 본연구 대상인 취업모의 절반 정도는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이라는 적극적 동기에 의해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외에 본연구에서는 탁아에 대한 지지특성변인군으로 취업모의 직업용통성과 남편의 아버지역할 수행정도를 설정하였다. 직업용통성의 경우, 평균 27.58($SD=3.91$, 범위 14-38, 왜도=-.02)로 정상분포보다 약간 부적으로 편포되어 직업용통성이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아버지역할 수행정도 역시 대체로 높은 편이어서($Mean=14.51$, $SD=3.07$, 왜도=-.27), 연구대상 취업모가족의 남편의 아버지역할 수행정도가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다.

2. 취업모의 탁아에 대한 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 취업모의 탁아에 대한 죄책감, 탁아만족도, 전통적 자녀가치관, 취업모의 자아존중감

본연구에서는 취업모의 탁아에 대한 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으로서 탁아특성변인군(탁아에 대한 만족도, 자녀의 탁아경험횟수, 탁아자 변경횟수, 주중 탁아시간, 탁아유형), 탁아에 대한 지지특성 변인군(남편의 아버지역할수행, 취업모의 직업용통성, 자녀 출산이후 직장생활 지속에 대한 반대유무), 어머니의 사회심리적 특성변인군(전통적 자

녀관, 자아존중감), 그리고 자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군(성별, 출생순위, 월령)을 가정하였다. 먼저 탁아에 대한 만족도($Mean=10.10$, $SD=2.26$, 범위 4-15, 왜도=-.25)는 부적 편포를 보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치관($Mean=53.91$, $SD=7.36$, 범위 33-71, 왜도=-.11) 역시 부적 편포를 보여서 대상 취업모들이 전통적 자녀관을 갖고 있음을 반영해 주었다. 한편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40.44점($SD=4.39$, 왜도=-.21)으로써 대상자들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대상자의 탁아에 대한 죄책감 평균점수는 24.66($SD=5.70$, 범위 9-35, 왜도=-.54)점으로 정상분포보다 부적으로 약간 편포되어, 죄책감의 정도가 대체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본연구 대상 취업모는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및 만족도, 전통적 자녀가치관, 자아존중감, 그리고 남편의 아버지역할 수행정도가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다.

2) 탁아에 대한 죄책감 관련 변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상관계수와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와 같다.

탁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군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취업모의 탁아에 대한 죄책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변인은 탁아특성변인군으로 약 17%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탁아만족도, 탁아자 변경횟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쳐서, 탁아만족도가 낮을수록, 탁아변경횟수가 높을수록 탁아에 대한 죄책감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 남편의 아버지역할 수행, 어머니의 직업용통성, 자녀출산 이후 취업반대 유무 등 탁아에 대한 지지특성변인군을 첨가한 결과 설명변량이 약 2%정도의 증가를 나타냈는데, 설명변량 증가에 대한 유의도 검증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탁아 지지특성변인군은 취업모의 탁아에 대한 죄책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 모델 3에서는 어머니의 전통적 자녀가치관 및 자아존중감의 사회심리

〈표 4〉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상관계수, 평균 및 표준편차

(N=17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타아만족도	1.00													
2. 타아경험월수	-.14	1.00												
3. 타아자 변경횟수	-.05	.14	1.00											
4. 주중 타아시간	.09	.04	-.11	1.00										
5. 타아유형(가족원=1)	.02	.00	-.50	.16	1.00									
6. 남편의 父역할수행	.05	-.14	.01	.02	-.01	1.00								
7. 직업용통성	.20	-.01	.01	-.01	-.01	.30	1.00							
8. 취업반대 有無	-.31	.05	.09	-.07	-.09	-.02	.01	1.00						
9. 전통적 자녀관	.09	.03	.08	-.02	.17	.01	.12	.19	1.00					
10. 母의 자아존중감	.03	.00	.05	-.04	-.06	.16	.06	-.14	.05	1.00				
11. 자녀의 성(남=1)	-.22	.21	.02	.08	.00	-.04	-.04	.04	.10	.00	1.00			
12. 자녀의 출생순위	.14	-.04	.01	-.17	-.14	-.09	.16	-.08	.14	.05	.09	1.00		
13. 자녀의 월령	-.15	.81	.24	-.11	-.16	-.10	.00	.09	.03	-.01	.13	.01	1.00	
14. 타아에 대한 죄책감	-.30	.02	.25	-.15	-.06	.06	-.10	.17	.15	-.07	.07	-.13	.01	1.00
평균	10.10	14.98	0.66	55.35	0.57	14.50	27.71	0.39	53.91	40.44	0.54	1.34	21.36	24.66
표준편차	2.26	9.83	0.95	0.95	0.50	3.10	3.85	0.49	7.36	4.39	0.50	0.53	9.76	5.70

〈표 5〉 취업모의 타아에 대한 죄책감의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	모델 1 타아 특성		모델 2 타아 지지특성		모델 3 母의 사회심리적 특성		모델 4 자녀의 일반적 특성	
	b	β	b	β	b	β	b	β
타아만족도	-.72	-.28***	-.63	-.25***	-.69	-.27***	-.67	-.27***
타아경험월수	-.03	-.03	-.03	-.04	-.03	-.05	.07	.11
타아자 변경횟수	1.72	.29***	1.74	.30***	1.56	.26***	1.53	.26***
주중 타아시간	-.03	-.11	-.03	-.12	-.03	-.12	-.04	-.16
타인양육유형(가족원=1)	1.31	.11	1.46	.13	.85	.07	.34	.03
남편의 父역할수행			.18	.10	.22	.13	.19	.10
母의 직업용통성			-.15	-.10	-.18	-.12	-.13	-.09
취업반대 有無(반대=1)			.67	.06	.02	.00	.04	.00
전통적 자녀가치관					.13	.16*	.14	.18*
母의 자아존중감					-.15	-.12	-.16	-.12
자녀의 성(남=1)							.19	.02
자녀의 출생순위							-.08	-.10
자녀의 월령							-.11	-.20
intercept	31.97		32.32		33.19		33.87	
R ²	.1682***		.1844***		.2181***		.2381***	
R ² 증가량			.0162		.0337*		.0200	

*p<.05 ***p<.001

적 특성변인군을 첨가했는데, 설명변량이 약 22%로 그 증가분에 대한 유의도 검증에서 의미있는 결과가 산출되었다. 따라서 취업모의 사회심리적 특성변인군은 탁아에 대한 죄책감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즉 전통적 자녀가치관이 높을수록, 탁아 만족도가 낮을수록, 탁아자 변경횟수가 많을수록 취업모의 죄책감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모델4에서는 자녀의 일반적 특성변인군을 첨가했는데 의미있는 변량의 증가를 보이지는 않았다. 따라서 취업모의 탁아에 대한 죄책감을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변인은 탁아특성변인군으로 탁아만족도가 낮을수록 탁아자변경횟수가 많을수록 죄책감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다음으로 죄책감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군은 어머니의 사회심리적 변인군으로 전통적 자녀가치관변인이 있는데, 즉 어머니의 전통적 자녀가치관이 높을수록 죄책감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V. 논의

본 연구는 대상이 비교적 고학력의 전문·관리직, 사무직 취업모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표집의 대표성과 표집수의 제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 상황 내지 가족상황과 대상자녀 및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탁아실태의 다양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특히 자녀양육대안을 찾기 어려운 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하여 탁아실태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는 점, 그리고 기존의 탁아연구가 실태 및 취업모 요구도조사나 탁아가 자녀에 미치는 발달적 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모의 측면에서 탁아가 미치는 심리적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취업모를 위한 미시적, 거시적 차원의 지지체계 마련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고 본다. 본연구를 통해 나타난 중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3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모의 57.2%가 가족원에 의한 대리양육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어린이집, 놀이방의 탁아시설을 이용한 사례는 24.5%, 비가족원에 의한 개인탁아는 17.4%였다.

둘째, 비가족원에 의한 탁아유형이 가족원에 의한 탁아유형보다 탁아자 변경 횟수가 많아서 탁아의 중요한 질적 특성을 구성하는 탁아자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취업모의 자녀출산 이후 직장생활 지속에 대한 주변 인물의 반대는 37.2%로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반대가 있었던 경우 구체적 사유로 지적된 것이 대부분 자녀양육(93.1%)으로, 우리나라 취업모가 여전히 직업역할과 어머니역할이라는 이중 책임의 딜레마에 처해 있음을 드러내 주었다.

넷째, 취업모의 탁아에 대한 죄책감 점수분포는 부적 편포(Mean=24.66, SD=5.70, 범위=9-35)를 보여서, 대상 취업모들의 심리적 어려움이 비교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 역시 우리나라 취업모가 직장과 가정내 역할 간의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다섯째, 취업모의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탁아특성 변인군과 어머니의 사회심리적 특성변인군으로 나타났다. 즉, 탁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탁아자의 변경횟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어머니의 전통적 자녀관이 높을수록 탁아에 대한 죄책감이 높아졌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의미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식적 영아탁아체계의 필요성이다. 앞으로 취업모,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은 계속 늘어갈 전망이다. 정부 역시 탁아기관의 확대를 정책적으로 표방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탁아기관은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영아탁아기관의 확대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현실적으로 개인탁아가 갖는 높은 비용을 고려해 볼 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영아탁아기관의 설립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자녀출산이후 주변 가족원의 취업모의 직장생활 반대이유가 대부분 자녀양육이라는 것은 여전히 자녀양육이 어머니의 배타적인 역할이라는 전통적 사고를 반영해줄 것이다. 또한 취업모 자신의 전통적 자녀관 내지 그로인해 야기되는 탁아에 대한 죄책감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은 취업모 역시 현대

사회변화에 적합한 부모역할관을 갖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적 측면에서는 취업모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대립이 아닌 병행을 보장할 수 있는 융통성있는 근무시간제의 도입, 재택근무제, 부모휴직제도의 과감한 실행이 요구된다. 또한 현대 사회 구조변화와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는 측면에서의 바람직한 여성관, 가족내 어머니역할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다. 즉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새로운 여성관, 어머니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학제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부모역할에 대한 모색, 예를 들면 양성적 부모역할같은 주제가 활발히 논의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또한 가족내에서는 부부간 부모역할 공유가 이루어짐으로써 현대사회에 적합한 부모역할관이 정립되리라 생각한다.

세째, 취업모의 탁아만족도가 낮을수록 탁아자의 변경횟수가 많을수록, 어머니의 탁아에 대한 죄책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 역시 제도적 측면에서의 논의를 제기케 한다. 즉, 제도적으로 탁아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우기 영아기는 발달적으로 민감한 시기이고, 돌봐주는 탁아자의 안정성이 영아탁아의 중요한 질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영아탁아자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예를 들면 탁아자의 자격기준 규정, 탁아자의 지위보장 등-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여건상 탁아의 양적 확대가 시급한 과제이고, 더구나 영아탁아는 더욱 열악한 실정이라는 하지만, 탁아의 양적 확대와 질적 기준 보장이 선후관계에 놓여 있기 보다는 병행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네째, 본연구 대상자의 절반이상이 가족원에 의한 양육을 이용한다는 것은 영아탁아 필요성외에도 '어떻게 남에게 아이를 맡기느냐'는 식의 혈연중심 가족주의를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배타적이고 혈연중심적인 가족주의는 바람직한 탁아관으로써 논의되는 "공동육아관"과 대치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즉 배타적 가족주의가 우리 의식에 남아 있는 한 정책적 측면에서의 탁아제도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그 실효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이다. 따라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현시점에서 하루빨리 우리 의식 근저에 뿌리깊은 배타적 가족이기주의가 지양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다섯째, 본연구는 앞서 언급했듯이 취업모의 측면에서 탁아에 대해 갖는 죄책감 관련변인을 탐색했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연구가 실행된 이유로 연구모델의 설명력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아직 규명되지 않은 관련변인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이론적 논의는 결국 취업모와 그 자녀를 위한 복지정책 마련에 기본 자료가 되리라고 본다.

【참 고 문 헌】

- 1) 김경연(1987). 부모의 아동평가·자아존중감·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2) 김미경(1985). 탁아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정서 반응 및 사회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3) 김민선(1991). 직장탁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4) 김은형(1995). 어머니의 역할관과 역할갈등이 어머니 격리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5) 김향화(1993). 탁아기관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주는 변인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6) 박성욱(1993).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격리불안.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7) 박성욱(1995). 취업모와 자녀발달. 조복희(편). 아동발달의 이해(pp334-349). 서울 : 교육과학사.
- 8) 보건사회부(1994). 1994년도 보육사업지침.
- 9) 서동영(1992). 어린이집 현황 분석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0) 서울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1992). 우리 아이들 어디서 자라는가?- 취업모의 자녀양육현황과 탁아요구-. 제4회 소비자·아동학과 심포지움.
- 11) 손승영(1994). 한국사회의 변화와 가족.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pp23-55).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12) 송진숙(1994). 탁아의 질과 어머니 자아존중감에 따른 어머니 격리불안.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3) 신현주(1993). 비영리 민간탁아시설의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4) 양안나(1990). 탁아경험 및 가정환경이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5) 이순영(1993). 탁아기관의 시설, 설비 현황에 관한 연구-대전직할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6) 이진주(1987). 가정탁아 이용실태와 이용자의 요구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7) 이윤희(1993).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8) 이현정(1993). 지역사회탁아소의 재정실태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9) 제현순(1994). 환경문화실조 영아를 위한 탁아 프로그램 실태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20) 전세경(1994). 도시취업모의 탁아유형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4), 135-148.
- 21) 조선영·이 영(1992). 가정보육시설의 질적 특성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3(2), 129-144.
- 22) 최순남(1974). 탁아소 입소전 아동과 입소후 아동의 생활변화에 대한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23) 탁아연구모임(1994). 각국의 탁아제도 비교연구.
- 24) 통계청(1994). 한국의 사회지표.
- 25) 한국교육학회 유아교육연구회(1992). 영·유아를 위한 보호와 교육의 정책 방향. 서울: 양서원.
- 26) 한국여성개발원(1994).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 27) 허경옥(1994). 부의 자녀양육에의 참여시간 결정 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3), 63-70.
- 28) 황현주(1991). 유아교육기관의 질과 유아의 사회적 행동-종일제 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29) 홍금자(1987). 탁아보호경험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30) 홍상실(1992).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종일제 보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상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31) 홍성례(1995). 30대 남편의 가족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32) Belsky, J.(1986). Infant Day Care: A Cause for Concern? *Zero to Three*, 6(5), 1-7.
- 33) Belsky, J.(1992). Consequence of Child Care for Children's Development: A Deconstructionist View. *The National Symposium on Child Care in 1990s*. pp. 83-94.
- 34) Galinsky, E.(1992). The Impact of Child Care on Parents. *The National Symposium on Child Care in 1990s*. pp.159-171.
- 35) Mason, K, O., & Duberstein, L. (1992). Consequences of Child Care for Parents' Well-Being. *The National Symposium on Child Care in 1990s*. pp.127-158.
- 36) Mann, M, B., & Thornburg, K, R. (1987) Guilt of Working Women with Infant and Toddlers in Day Ca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7, 451-464.
- 37) Scarr, S.(1992). 어머니의 양육과 타인의 양육. 현은자(역). 서울 :양서원. (원본발간일, 1984).